

이주의 문화

# 물 속에서 위안을 얻는 방법, 소설 「아가미」

훌륭한 여성 작가 구병모의 소설 「아가미」는 죽기 직전에 아가미를 갖게 된 소년 ‘곤’의 이야기이다. 곤의 아버지는 가난으로 인해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 하지만 곤은 극적으로 아가미를 갖게 돼 물속에서 혼자 살아남고, 우연히 ‘강하’라는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를 만나 거뒀다. 소설 「아가미」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열렬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강하는 아가미와 비늘이 있는 곤을 물고기라 부른다. 그것도 따지자면 일반 물고기가 아닌 호숫가에 살기 때문에 민물고기란다. 소설 「아가미」를 읽는 내내 좋은 의미로 정말 소설스럽다고 생각했다. 소설의 느낌이 강해 현실을 잊을 만큼 더욱 아름답다.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물과 닮았기 때문일까. 해류, \*곤, 강하, \*이녕 등 텃밭하고 뿌연, 물고기의 소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호

수 밑바닥이 떠오르는 이름들이 작품의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킨다.

강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 알지 못한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진 그가 무뎠던 할아버지 손에 맡겨지며 배운 거라곤 자신을 방어할 기계인 공격적인 성향뿐이다. 하지만 강하는 아닌 척해도 곤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를 아끼고 가족으로 맞이하며, 끝까지 지켜내고 사랑했다는 점이 독자들을 슬프게 한다. 불안한 삶이지만 강하에게는 모든 시간이 항상 자신의 최선이었다.

“날 죽이고 싶지 않아?” “물론 죽이고 싶지, 그래도 살아있으면 좋겠으니까”

삶이 곧 증오를 의미하진 않는다. 물이 그 자체로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다. 물은 생명에게 없어서 안 될 존재인 동시에 언제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절대적 존재로 작용한다. 양극을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물의 힘이란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게 잔혹한 물속에서 오직 희망과 생명만을 상징하는 곤은 한 수 더 위대하다. 물속에서 편안히 숨을 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살리기까지 한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책 끝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곤의 인생에서 이러한 희망이 깨질 일은 없어 보인다. 읽는 내내 어디선가 호수의 비릿한 물 냄새가 나는 듯한 소설이다. 하지만 전혀 싫지 않은 삶을 수가 없는 그런 향이 깊게 배어 있다. 비 오는 날에 축축한 비 냄새를 맡으며 작품을 읽고 학우들이 저마다의 위안을 받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 곤 : 장자의 책에 나오는 전설 속의 큰 물고기임.

\* 이녕 : 땅이 깊어 질퍽질퍽하게 된 진흙탕임.

시각영상디자이너 19 최예원

청파동 사진관

홍보광고 18 김하랑



숨 쉬어 숨! 대학에 가면 놀 수 있다던 고등학교 선생님의 말에 배신감을 느낀다. 잠깐 여유를 부리던 매주 서너 개씩 몰아치는 과제와 밤샘을 경험하게 된다. 바쁘게 과제를 하다 보면 시험 공부할 힘이 없다. 다 던져버린 채 쉬고 싶은 마음을 붙잡고, 잘하고 싶단 욕심을 내려놓는다. 아차피 해야 할 일 ‘에라이!’ 외치며 해치우자. 그렇게 나를 내려놓은 날, 집에 가는데 이 풍경이 ‘수고했어’ 잘 살고 있어라고 나를 위로한다.

## 독자의 일침

### 치열함으로 만드는 치밀함

속대신보 제1411호는 이전에 발간된 신문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1면의 지면 구성이다. 각 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면이 전부 텍스트로만 채워져 있다. 활용성이 낮은 설문조사의 주관식 응답을 활용해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했던 점에서 제1411호만의 차별점이 드러난다.

이어지는 지면에선 두 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신문의 유기성을 더했다. 해당 기사는 학내보도 기사와 기획 기사를 융합한 성격을 갖추고 있다. 본래의 학내보도 기사엔 내부 관계자의 코멘트가 주를 이루는데 외부 전문가 코멘트를 추가함으로써 기사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기자단의 노력이 보였다. 다만 제목과 그래픽에서 아쉬운 점이 보였다. 제목은 본문을 읽기 전에 독자가 처음 접하는 기사로 본문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해상도 낮아 확인 못해던 기사의 제목은 발화자가 불분명해 본문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설문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픽에서도 아쉬운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설문지와 함께 결과를 제시하는 대신 수치가 표시된 그래프를 제시했다면 설문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설문지의 내용과 그래픽의 내용이 거의 일치해 그래픽이 불필요하게 지면을 차지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부서 기사 대신 짧은 길이의 학내보도 기사를 배치함으로써 앞서 긴 글로 독자가 느꼈을 피로감을 경감시켰다. 다만 5면 ‘세계 최초 줄기세포 자동 분화 플랫폼, 본교-중앙대 연구팀 개발 성공해’ 기사의 모호한 방향성은 아쉽다. 전문적인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연구 내용을 전달하는 기사라기엔 깊이가 부족하다. 학술적인 내용을 담기에 지면이 부족하다면 공동연구를 시작한 계기 및 공동연구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다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보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은 기자를 성장시킨다. 지난 호에선 지면과 기사에 대해 많이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표본의 크기가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하며 조사 대상자를 선정한 점에서 취재에 대한 고민이 드러난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고민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사건은 마감 일정에 맞춰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평소에도 기사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지금껏 봐온바, 속대신보는 치열하게 고민할 준비가 됐다. 치열한 고민으로 치밀한 기사를 만드는 속대신보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독자위원 임세은 퇴임기사

## 뒤적뒤적 퀴즈

<속대신보> 잘 읽으셨나요? 네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단어를 지우고 남은 다섯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식	소	물	사	만
화	숙	어	청	대
약	중	난	항	신
숙	동	암	람	광
양	들	운	질	제

1. 암 종양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의약품.
2. 중앙대형상비를 가동해 건물을 냉난방하는 방식.
3. 본교 학우들이 직접 본교 슬로건을 만드는 프로젝트 명칭.
4. 지난 2018년 최초로 대표가 만든 공동소송 위주의 범법 플랫폼.

응모기간: 5월 26일(목)까지  
 참여방법: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smpkje101@sm.ac.kr)로 전송  
 정답 및 당첨자 발표: 제1413호  
 추첨을 통해 정답자 1명에게 5,000원을 드립니다.

지번호 정답: 없음(문제오류), 지번호 당첨자: 없음

## 일상의 감옥: 「감시와 처벌」에 관하여

### 학생칼럼

문헌정보 22  
김가은

죄를 지은 당신에게 선택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신체형을 통해 죄값을 치르는 형벌이고, 다른 하나는 감옥에 일정 기간 갇히는 형벌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신체형의 종류와 수감 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수감형을 택할 것이다.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고문은 야만스럽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여겨진다. 반면 수감형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위라 인식된다.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신체형이 사라졌다. 그 결과 비교적 폐쇄적인 수감형이 주 처벌방식이 됐다. 우린 현대 사회의 처벌이 인도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감형이 정말로 인도적일까.

20세기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한 영혼이 인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인간을 생존하게 만든다’며 ‘처벌이란 권력이 신체에 행사하는 지배력’이라고 주장했다. 즉 정신적 교화가 목적인

수감형도 신체에 가하는 처벌의 한 종류인 것이다. 수감형이 왜 신체형이고 감옥과 권력의 상관관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근대에 이르러 권력층은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 감옥을 만들었다. 감옥은 ‘자아를 가진 개인적 주체의 개체화’에 안성맞춤이다. 감옥은 규율을 통해 수감자의 정신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학교, 공장, 근대에서도 감옥과 같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받는다. 정신에 각인된 규율은 신체에도 영향을 미쳐 권력층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꾼다. 신체형 없이도 사람들의 몸을 길들일 수 있다.

「감시와 처벌」을 관통하는 내용 중 하나는 권력과 지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미셸 푸코는 처벌 방식이 변한 이유가 단지 인권의식이 향상됐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대사회에서 ‘자유로운 주체’로 살기 위해 우리는 감옥이 균형을 보다 잘 통제하는 권력층의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군중이 개체의 삶을 살길 원하며 사회의 규율을 지키길 바란다. 규율 아래 사회는 언제나 사람들을 감시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정상적인 존재로 낙인찍는다.

디지털 사회에서 양질의 정보는 권력이자, 개인은 편의를 위해 정보를 팔고 기업

은 정보를 통해 권력을 얻는다. 미국의 사회학자 마크 포스터(Mark Poster)는 이를 ‘슈퍼 파놉티콘(Super Panopticon)’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권력을 얻는 동시에 감시당한다. 정부와 기업은 스마트폰과 카드 명세서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을 추적한다. 자유로운 우리는 사실 일상의 감옥 속에 살고 있다.

미셸 푸코는 ‘규범 중심적인 권력은 엄격한 평등성의 체제 안에서 쉽게 가동한다’고 주장했다. 모두 자유로워 보이는 현대 사회는 권력층이 만든 규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순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개인정보 동의서를 진지하게 읽어본 적 있는지 떠올려보자. 필요한 상품을 적시에 추천해주는 쇼핑 서비스를 의심한 적 있는가. 혹은 사회의 주류가 아닌 사람을 힐난의 눈초리로 바라본 적 있는가.

개개인은 사회의 양면을 모두 인지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에 정보가 새고 있던 것을 기억하자. 또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감시사회 말고 따뜻한 훈육사회가 되길 바라는 미셸 푸코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타인을 감시하고 구분 짓지 말고 따뜻하게 보듬자. 자유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

## 송이의 부엌

### 설레면서도 그리운 맛, 펜네



필자가 소개할 음식은 ‘크림 펜네(Cream Penne) 파스타다. 펜네는 파스타 면의 한 종류로 사선으로 잘린 튜브 모양의 면발이 특징이다. 펜네는 스파게티만큼 대중적이진 않지만 스파게티보다 훨씬 맛있고 먹는 식감이 살아 있다. 필자는 어릴 때 미국 여행을 다녀온 뒤 펜네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때 미국 레스토랑에서 먹은 펜네의 맛이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펜네를 먹을 때마다 여행의 좋은 추억을 회상한다. 이에 필자는 크림 펜네 요리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크림 펜네를 만들기 위해선 펜네 면, 다진 마늘, 우유, 생크림, 바질, 후추, 소금이 필요하다. 기호에 따라 토핑으로 베이컨이나 브로콜리를 추가해도 좋다. 먼저 펜네 면을 끓는 물에 데친다. 데치기 전 물에 올리브유를 한 바퀴 둘러준다. 이렇게 하면 면이 익으면서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면이 다 익으면 물에서 건져낸 뒤 면수는 버리지 말고 남겨둔다.

면을 익히는 동안 크림소스를 만든다. 먼저 프라이팬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넣고 올리브유와 함께 볶아 마늘 향을 낸다. 마늘이 노릇하게 익으면 우유를 붓고 끓인다. 이때 우유는 펜네 면을 살짝 덮을 정도로 넣는 게 좋다. 크림의 부드러운 맛을 위해 저지방 우유가 아닌 일반 우유 사용을 권한다. 우유가 팔팔 끓으면 생크림을 넣어 소스를 끈적하게 만든다. 생크림의 양은 취향에 따라 조절한다. 필자는 200mL를 계량해 넣었다. 생크림이 없으면 밀가루 반 숟가락 또는 한 숟가락을 대신 넣어도 된다.

크림소스가 완성되면 준비해둔 면과

잘 섞는다. 그다음 바질, 후추,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해준다. 베이컨과 브로콜리도 먹기 좋게 썰어 넣는다. 이때 파스타가 너무 딱딱하거나 물기가 없으면 준비해둔 면수를 한 바퀴 둘러준다. 소스와 면을 골고루 섞어준 뒤 그릇에 옮겨 담으면 완성이다.

펜네는 우리나라의 수제비와 식감이 비슷하다. 펜네는 토마토소스, 로제소스와도 잘 어울린다. 간편하고 먹는 즐거움도 넘치는 크림 펜네 요리에 도전해보자.

한국어문 20 김문선